1. 가장 최근 경험했던 실패를 짧게 적어보고,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

제 최근 실패는 학업에서의 실패입니다.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꾸준히, 열심히 했습니다. 하지만 수학성적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재수를 했고, 현역 때는 막연히 수능을 다시 보면 공부량이 많아지니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수학 성적은 올라가지 않았고, 수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과목에서 되려 떨어진 성적을 받았습니다. 따라서 전 아직도 수능에서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대학에 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본 후 수학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.

1. 당신 탓이던가요?

사실 재수할 때 매일매일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. ‘난 이만큼이나,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될까.’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울었습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던 수험생활 중, 수학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‘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, 지금의 경험은 언젠가 꼭 쓰일 곳이 있다. 수능이 너에게 안 맞는 시험일 뿐이다.’ 수험생활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 때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 ‘이건 패배자의 정신승리 아닌가? 어차피 내 친구들보다 뒤쳐지고 있는데…’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또 제가 미워지고, 그럴 때마다 운동을 하며 잊고 있습니다.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 바램일 뿐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전 수능성적에서의 실패는 제 탓은 아니라 제 머리를 탓합니다. 그래서 종종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합니다. 머리가 안 따라줘서 수학성적이 안 오르는데, 그걸 꾸역꾸역 붙잡고 하는 제 자신이, 나오지 않는 성적을 받아들여야 하는 제 자신이,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. 참 많이 애썼습니다. 이젠 새로운 세상에서 더는 울고 싶지 않습니다.